

우리나라의酪農發展에寄与

— 韓國酪農学会篇 —

◇ 創立經過

우리나라의酪農은 1930년대부터 서울農乳組合과 서울牛乳協同組合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여 왔는데, 1963년부터는煉乳의自給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煉乳工場이 서울牛乳協同組合에 의해 설립되었고, 1965년에는粉乳製造施設이 同組合에 설립되어調製粉乳의自給을 향하여 첫발을 디디게 되어 이들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原乳를 공급하기 위하여乳牛의飼育數도 차차 늘어 왔다. 国内增殖으로 부족한乳牛는 해외로부터의 도입으로 충당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몇차의 5개년계획 시행에서計畵量의超過達成을 한바 있어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한바 있어酪農界뿐 아니라經濟界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飲用乳의消費量도 급속도로 증가되어包裝도牛乳瓶에만 하지 않고 폴리에틸렌주머니에 담은滅菌飲用乳도 나오고紙罐에 담은 카아톤(Carton) 밀크도 나오게 되었으며, 아이스크림과醱酵乳(요구르트, 야구르트等)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消費量이 크게 늘어1978년에는乳牛飼育數가 12만頭를 넘어서게 되었고年間100億원을 넘는 売出額을 올린 乳業会社가 몇개나 되게 되었다.

그리고 大學의酪農學科도 7個(建大畜大, 成均館大, 忠南大, 全南大, 慶尙大, 慶北大, 江原大)나 되어 業界와 學界가 함께 발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77~1978년에 金煥卿, 尹熙燮, 李學喆, 姜禧信, 金東岩, 金顯旭, 陸鍾隆 등의 諸教授가 협의하여 의견을 모아 1978년 5월 20일에 서울에서 發起人會를 갖게 되어酪農學會를 발기하게 되었다.

發起人會에는 金煥卿, 李學喆, 尹益錫, 金昌

柱, 金鍾禹, 李根常, 金善煥, 姜禧信, 陸鍾隆 등 諸氏가 모여 組織한 集會를 가졌었다.

이 發起人會에서도 6월 17일, 水原에서 創立總會를 갖기로 하고 陸鍾隆이 준비를 맡아 추진하기로 하였다.

創立總會에는 50여명의 초청에 20여명이 모여 會定款(會則)을 修正通過시켰고, 任員을 選出하였다.

任員으로서 會長에 陸鍾隆, 副會長에 金善煥·尹熙燮·李學喆, 常務理事에 鄭天容이 選出되고 理事, 監事의 選出은 會長團에게 위임했다.

이에 의하여 初代理事, 監사로 選出된 分은 다음과 같다.

理事 鄭天容(常務理事) 金顯旭, 姜禧信, 金鍾禹, 金容植, 金永柱, 尹益錫, 金煥卿, 金昌柱, 裴大植, 朴英一, 金東岩, 金榮教, 李載英, 鄭昌朝, 池高夏, 鄭雲翼, 金東坤, 薛東撰, 李南杓, 黃永球, 金南竜, 柳南烈, 林永大, 李興求, 尹龜基, 姜國熙, 朴信浩(28名)

監事 李根常, 金丙鎬(2名)

8월 26일에 水原에서 第1回理事會를 갖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다.

- 10월 14일(土)에 定期總會를 개최한다.

- 會費는 正會員이 年3,000원, 準會員1,000원 副會長, 理事, 監事는 當分間5,000원, 會長은 5,000원 이상으로 정하였고, 總身會費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 初創期の運營

10월 14일의 定期總會를 앞두고 所要經費의 調達을 위하여 會長과 在京 副會長은 東奔西走하여 필요한 費用을 團體會費의 名目으로 各企業體에서 모았는데, 各 乳業会社, 飼料会社 및 이에 關連하는 團體들의 積極적인 협조가 있었다.

定期總會는 계획대로 진행되어 特別講演, 丁抹酪農에 대한 映畫上映, 研究發表會(5篇)의 순으로 순조롭게 끝마쳤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金善煥 副會長, 姜禧信 理事, 韓弘栗教授 등 여러분의 협조의 공이 컸었다.

12월 2일에는 第1회 편집위원회가 열려 投稿規程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는 既存學會의 投稿規程을 참고로 하여 審議資料를 만들었다.

그간 9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사이에 韓國乳加工協會와 酪農學會와의 사이에 原乳의 生産費調査와 乳加工品 및 調製粉乳, 全脂粉乳, 酸酵乳, 市乳의 原價調査에 관한 調査研究의 契約이 이루어졌다.

原乳生産費調査는 閔丙烈, 金善煥, 尹熙爨, 姜禧信, 陸鍾隆이 分擔하고, 乳加工品の 原價調査는 尹孝稷, 유제현, 金顯旭씨들이 分擔하였다.

調査期間은 짧고 委員들이 奔忙하여 權威있는 調査研究를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의 體制는 갖출 수가 있었고 閔丙烈, 尹孝稷, 金善煥委員의 勞苦와 寄与가 컸었다.

더욱이나 1979年度の 原乳價決定에 있어 調査對象農家の 70%에 해당하는 酪農家の 生産費를 補償할 수 있는 3.4% 乳脂率의 原乳 kg당 209원으로 策定하게 된 것은 酪農學會의 威信을 높일 수 있는 快挙라 할 수 있었다.

1979년 2월 5일부터는 韓國酪農學會誌 刊行에 착수하여 時事通信社에서 인쇄하여 3월 5일에 製本이 끝나 學會에 납품되었다. 部數는 300部였다. 이리하여 學會誌 第1卷 第1號의 刊行은 完結되었다.

1979년의 春季學會를 5월 12일(토)에 갖기로 하였다.

2월부터 그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特別講演題目은 「우리나라 酪農界가 당면한 繁殖障礙에 관한 研究」로 정하고 日本에서 演士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李用斌, 任京淳教授의 추천을 받아 日本 畜産試驗場 飼養技術部長 桧坂繁光博士를 초청하

기로 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桧坂部長이 초청에 쾌히 응하여 5월 11일(金)에 金浦空港着으로 來韓하기로 하였다.

5월 12일(토)의 春季學會에도 予想外로 많은 회원이 全國에서 참가하여 特別講演會와 研究發表會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거기에 서울牛乳協同組合과 海태乳業에서 飲用乳와 酸酵乳가 많이 기증되어 酪農學會에 모인 酪農學者나 酪農人들은 酪農食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어 意義가 있었다.

그리고 美國飼料穀物協會 韓國支部의 협조로 美國의 Massachusetts 大學의 農工學教授인 Robert Light 박사의 乳牛牧場施設에 관한 講演도 있었다.

春季研究發表會에서는 6개의 研究論文이 발표되어 前년도 秋季學會에서의 5篇과 합하면 11篇이 되는 것이다.

研究發表會가 끝나고 곧 理事會가 있었는데, 9명이 모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決定하였다.

- 秋季學會는 10월 20일(토)에 개최하며, 場所는 水原에서 한다.

- 特講은 畜産試驗場의 飼養技術科長 鄭天容氏의 「丁抹(또는 EC地區)의 酪農에 관하여, 慶尙大 姜禧信教授의 「丁抹의 酪農教育制度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演題는 乳加工分野를 발표演題로 선정한다.

- 終身會員 會費를 50,000원으로 한다. (物價昂騰으로 引上할 필요가 있을 때는 理事會에서 引上하도록 한다)

- 學會의 自立을 위한 対策으로 酪農에 대한 單行本 등의 發刊事業을 한다.

- 研究論文의 整理를 學會開催日에 앞서 부탁하는 公文을 낸다.

- 10月學會에는 5月學會에서 발표한 論文과 特別講演要旨, 綜說이 실린 會誌를 나누어 주고, 5月學會에서는 10月學會에서 發表한 論文, 特別講演要旨, 綜說을 엮어 會誌를 내고 配布하도록 한다는 등 7개 항이 채택됐다.